

도내 공공건축물 증가추이 '심각'

장학수 도의원, "유지관리비용만 매년 1496억원... 재정투자심사 강화·공공투자관리센터 개설을"

전북도의 재정지립도 및 재정상태가 전국 최하위임에도 도내 공공건축물들의 고정 유지관리 비용에만 1,496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국민의당, 정읍 1)은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전북도와 14개 시·군 중 도봉청,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안, 장수, 임실, 부안, 완주, 고창 등 시군 자체수입보다 무려 2배나 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북도 재정상태의 심각성을 질타했다.

또한 장 의원은 전북도 정책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이 29.5%로 전국 최하위이고, 정부 보조사업 비율은 53.3% 전국 1위로, 중앙재정 의존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헌법개정과 지방자치 강화를 피하고 있는 만큼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전에 자체재원 확대 방안과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됐을 때 감소할 수 있는 재정 감소 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 의원은 "도와 14개 시·군의 자체수입 대비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 지출 비율이 20%가 넘는 지자체가 남원,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 총 6군데나 되며, 이는 지난 2014년 도정질문 때 조사 결과보다 무려 3배가 증가한 것"이며, "특히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북도와 시·군에서 새로 지은 공공건축물만 총 253개 동, 연면적 24만 2,636㎡이며, 취득가액을 건축비로 보았을 때 지난 2년여



"KBS의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재수사해야" 국회 미래청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부터) 의원, 신경민 의원, 유승희 의원, 고홍진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KBS의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안 건물 신축에만 3,676억 4,700만원의 예산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자체장들이 지적성, 선심성 건축사업을 진행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의 자료요청에 의해 도가 조사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현재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소유한 공공건축물은 4,847동이며 371만7,878㎡의 면적에 유지관리를 위한 근무인원이 2,049명, 인건비, 시설보수비 등 유지관리비용은 연간 총 1,496억 6,7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 의원은 이는 전북도가 지도 감독

역할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전북도는 14개 시군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각종사업들의 재정투자 심사를 강화하여 공공건축물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신규사업을 필터링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해서는 "전북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후 공공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각 시군의 재정상태에 맞는 건축물 공유재산 유지관리 비율이 적정

하게 유지되도록 공공건축물의 사용 현황, 유지관리 현황을 DB(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재정투자심사시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공공시설물을 무분별하게 늘려 유지관리비용도 함께 증가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한다"며,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현황을 DB로 구축하여 재정투자심사시 반드시 참고하여 시군의 재정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전북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으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기원 KBS 열린음악회 '성황'

18일(일) KBS1 TV 방송

2017 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KBS 열린 음악회'를 9일 오후 7시, 전주 비전대학 특설 무대에서 열었다.

이번 행사는 대회 조직위원장인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한영수 비전대학교 총장 등 도내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태권도 관계자 100여명, 도민 1만여명 등이 참석해 대회를 알리고 대회성공에 뜻을 같이했다.

열린 음악회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남, 성악가 김남두(테너), 김순영(소프라노)이 출연하였고 남진, 트와이스 등이 출연해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또, 크라이넛, 울랄라세션, 에스닉팝그룹(퓨전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전주비전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공연 등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대회 개막 보름여를 앞두고 열린 이번 음악회는 18일(일) KBS1 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문건위, 생활체육 대축전 전북선수단 격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8일 제주도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식에 참석해 전북선수단을 격려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전국 1800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가장 큰 행사로, 기록과 승패의 결과보다는 스포츠의 순수함과 열정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가장 서민적이고도 생활친화적인 대회이다.

이번 대회에 전북선수단은 35개 종목, 823명으로 검도와 게이트볼 등 31개 정식종목 및 빙상, 줄다리기 등 4

개 시범종목에 출전한다.

문건위원들은 이날 도내 선수들을 만나 "생활체육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활력소"라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과 소통의 한마당이 되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8일부터 11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펼쳐지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44개 종목에 총 2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자웅을 겨룬다. /김진성 기자

미래산업 창업생태계 구축 박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센터)가 미래산업 창업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도는 9일, 전북센터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산업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추진 의지는 그동안 제기되어 온 불분명한 정체성 논란을 뛰어넘어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북센터는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창업기업 육성 ▲중소기업 혁신 ▲지역특화사업 육성이란 3대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표 기능인 '지역특화산업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과 도민들의 아이디어를 산업에 접목

하고 도정하는 '상향식 창업 생태계 플랫폼'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창업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금융, 특허, 법률 컨설팅 지원을 원스톱으로 추진한다.

또 창업 초기부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적용, 시제품 제작과 글로벌 클라우드 펀딩, 판로유통망을 수요자 요구에 맞게 단계적으로 연계하고, 온오프라인을 총 동원해 청년의 창업 분위기 확산과 창업 문화 확산에도 자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센터는 자체 창업지원 사업과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밀도 있는 창업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창업초기기업부터 창업 7년까지의 중소기업을 단계별로 지원하며, 창업생태계를 구축 완료해 창업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진성 기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

30일까지 신청... 현역 34개월·사회복무 26개월 농업 종사

전북도는 "영농현장에 젊고 유능한 인력유입을 유도해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의 미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30일까지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임명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정착의욕이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후계농업경영인,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중 징병검사를 받았거나 올해 징병검

사 대상자이며, 교육기관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으나 2018년 졸업예정, 야간학교·방송통신 수학과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영농정착지역 또는 정착예정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또는 농업기술센터)에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신청하면 된다.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동안 자신의 사업장에서 농업에 종사하게 된다. /김진성 기자

전북투어패스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

도, 12일~30일 신청 접수

전북도는 2017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전북투어패스'의 인지도 및 판매량 확대를 위해 전북투어패스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체험수기 공모전은 12일부터 30일까지 19일간 접수할 계획이며, 도외 관광객이 공모 기간 중 이메일로 체험수기 공모 내용(A4 1~4매)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등급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전북투어패스 1회 이상 사용 경험이 있는 도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은 개선사항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북투어패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것으로 인지도 및 판매량을 확대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체험수기 공모전을 통해 외부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체험수기 공모가 가능해 관광객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해 큰 호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도탈관광·전북투어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